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대원함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은 회의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결론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길에 과감히 펼쳐나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 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

본사기자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히 열리게 될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부각된 선전화의 우뚝 부분에는 《광명성절》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아래부분에는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이라는 글발 그리고 축전장소와 기간이 반영되어있다. 선전화의 중심에는 흰눈덮인 웅장스러운 정일봉과 수림,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숨엄하게 형성되어있으며 위대한 선군대양을 우리러 활짝 피어난 크고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이 그려져있다. 선전화는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성황리에 진행될 대양의 꽃축전을 훌륭히 장식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

본사기자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그리움과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열린 대회에서는 룡구, 배구, 탁구, 스키, 빙상호케이를 비롯한 8개 종목의 경기가 평양과 삼지연 등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이 5일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있었다. 로두철내각부총리,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체육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종무체육상이 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기발이 개막되었다. 암록강체육단 선수 김혜경, 기관차체육단 감독 리덕철, 4.25체육단 부단장 김광웅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룡남산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사이의 남자룡구경기가 있었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공화

본사기자

조국인민들과 함께 전면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총련본부 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본부 위원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규탄하여 1월 29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로무현은 조선의 자주권을 관용하게 침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결렬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이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대해서는 전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오직 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강도적인 룡리 로 무죄로 부당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공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 조직들 모임 진행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규탄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산하 지부들과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연변지구청년위원회의 모임이 1월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이 랑독되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민족사적대경사인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조작한 《결의》는 평화적인 위성

한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쏘올린 조국의 우주정복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할 굳은 신념을 안고 결렬히 싸워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조국제가 1월 24일 《일본의 위협천만한 군사대국화책동에 각성을 높이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미친듯이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얼마전 일본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에서 군사비지출을 대폭 늘이기로 결정하는 한편 자체 《방위》에 국한되었던 군사전략을 제정도하겠다고 발표한것이 대표적실례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의 법적, 재정적담보를 마련하려는것이라고 담화는

차별질것이란 비참한 종말밖에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재중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조국인민들과 함께 미국과 리명박적대당을 비롯 한 온갖 적대세력의 대조선업살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까밝혔다. 담화는 일본반동들의 과거 침략사적과 군사대국화책동이 위험한 실천단계에서 맹렬히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력사는 외국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사대국화로 나가는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출달음된다면 차제것은 오직 비참한 파멸뿐이다. 일본반동들은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평화번영의 리정표

민족이 일구어온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옵니다.

민족분열의 기나긴 력사에 인제기 없었던 격동적인 사건들로 가득찬 6.15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찾아주고 평화로 지켜주고 통일공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기치라는 것을 겨레의 가슴에 진리로 뜨겁게 새겨준 가슴벅찬 날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세기이상이나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건이였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북남사이에는 삼강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렵게 열여섯년 전 분열의 장벽에 파러기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바다길

을 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꿈속에서만 그려보던 그리운 혈육들을 만나 얼싸안고 회포를 나누는 감격적인 상봉들도 마련되었다.

북녘에서 《미녀유원단》이 왔다고, 남녘의 동포들이 《아리랑》관람을 왔다고 서로가 반갑게 맞고 기쁨을 터뜨렸던 때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친 것은 우리는 하나이고 통일을 능히 이룰수 있다는 벅찬 확신과 확신이었다.

혈연의 끈으로도 녹이지 못하고 세월의 년륜으로도 깨뜨리지 못한 불신과 대결의 차디찬 얼음을 녹이고 북과 남의 겨레를 뜻과 정이 통하는 진정한 하나로 다시 되게 해준 것이 바로 6.15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도 안겨주었다.

금강산과 개성에서 수십년 세월 강토를 가로질러온 가시철조망과 지리가 길고 험하고 도로가 편편되었다. 배수침판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명상 금강산에서 6.15가 안겨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수백여개의 남조선기업들이 민

족경제발전의 길에서 6.15의 혜택을 입었다.

2007년에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이 또다시 열리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채택되어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현 남조선 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리명박 《정권》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지난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6.15의 길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

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로 인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괴립압

박을 짓부셔버리는 것은 조성된 현에 대한 정세의 요구로 볼 때 오늘날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지난 2일 진보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2013조국통일운동대토론회》에서는 현 정세하에서 《대결상태해소에 나서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중시》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때 대한 목소리가 높게 울려나왔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힌 길을 따라 곧바로, 바로 이것이 조국통일성업실현의 길에 펼쳐나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 타버리고 있는 철의 신념이다.

김진혁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기본리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이기 때문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온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에 맞게 올바르게 해결해나갈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용케 해결할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력사를 통하여 확증된 철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의 리념을 최고의 경지에서 구현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대명제이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그 어떤 외세

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복없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우호의 원칙을 세워나갈때만 확고한 민족자주의 립장이 반영되어있다.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혀주고있는 이 명제는 바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때만 자주자신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철저한 민족대단합의 리념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을 동반한다. 이 대결전에서 민족주체적 통일애국력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데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 민족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 대단합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의 위력한 추동력, 결정적력량이 되어 안락의 분렬주의



《황당하고 악랄한 궤변》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원 로인사들이 서울에서 6.15. 10.4선언지시리행과 《대북 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통성투쟁을 벌였다. 아래의 글은 한 통성참가자가 쓴 글이다.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황당하고 악랄한 궤변이 전 리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평화적우주개발과 리용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는 꿀먹은 벼어리마냥 합구 무언하는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평화적우주개발과 리용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는 꿀먹은 벼어리마냥 합구 무언하는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확준

의 민족리간, 반통일전쟁책동이 수십해전 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자주에 살기를 원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합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조국의 번영도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정기풍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역원, 간사회의 진행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평통협) 역원, 간사회의가 1일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서충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리동제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회장과 역원, 간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서충언국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이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행사인 평화적인공위성발사를 불행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올해 평통협이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때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리동제회장이 보고를 하였다.

당면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파적발사를 《란도미사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라고 결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감행한 《제재결의》 채택내용은 포악무도한 날강도행위의 극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하여 공화국이 국제적인 관례이상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우정정세가 온화한 때를 골라 발사시기를 택하는 등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을 립증해보이기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는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공화국은 지난 2009년 3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을 가입하였으며 그후 조약상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공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해

당한 국제기구들에 위성발사기간과 추진체의 락구적 등을 통보하였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우주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위성발사장파 《광명성-3》호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극비로 간주하는 위성

재적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평화적위성발사는 애당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의제로 상정될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

히 준하여 진행된 공화국의 위성발사가 《비법》이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립리는 국제우주조약자체가 비법이며 지금까지 모든 조약성원국들이 진행한 위성발사가 비법적인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기

는 꿀먹은 벼어리마냥 합구 무언하는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평화적우주개발과 리용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정확준

포악무도한 적대행위

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시키는 특례적인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처럼 공화국의 위성발사계획의 평화적성격을 제대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외발》을 떠들며 또 다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한것이야말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립박한 위반이고 도전으로 된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말그대로 국

제정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평화적위성발사는 애당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의제로 상정될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

히 준하여 진행된 공화국의 위성발사가 《비법》이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립리는 국제우주조약자체가 비법이며 지금까지 모든 조약성원국들이 진행한 위성발사가 비법적인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기

는 꿀먹은 벼어리마냥 합구 무언하는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평화적우주개발과 리용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정확준

반공화국대결광란의 최절정

집권한 첫날부터 종말을 고하게 된 오늘까지 온갖 반인민적악정과 《대북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과 민족앞에 헤아릴수 없는 죄악만을 쌓아온 리명박 《정권》이다.

그들의 죄악이 하도 크고 무거워 력사에 죄인으로 락인되고도 남음이 있고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첫손가락에 꼽힐 죄악은 바로 북남관계파탄이다.

출현하자마자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결적 《대북정책》을 내놓고 북남관계를 단계적으로 파탄시켜온 리명박 《정권》의 대결본색은 첫 통일부 장관배정으로 부터 여실히 드러났다.

리명박보수 《정권》은 《통일은 없다.》는 미치광이같은 궤변으로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회세의 반통일대결정자인 남주홍을 통일부 장관자리에 내정했던 것이다.

그것이 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긴 했지만 현인력, 류우익과 같은 대결파들을 팔라가며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히고 대결적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해왔다.

그들은 판관파사건을 코

고 정세를 극단한 대결국면으로 돌려세웠으며 온 겨레가 일일천추 갈망하는 통일애국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놓는것뿐이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온 겨레는 민족의 머리에 재앙만을 불러오는 리명박보수 《정권》의 동족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리명박의 《대북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그것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여왔다.

그러나 리명박 《정권》은 숨겨지는 온갖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 달려들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천하에 떨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을 두고 저저마다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고야 대고있으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형제에게 손가락질할 때 남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만 한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마저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리명박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은 립중에 처한 자들의 마지막말약으로서 이래저래 다 망한 판에 미국상정들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려 만신창이 된 체면을 조금이라도 추세우며 도발의 불꽃을 휘둘러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천하에 떨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을 두고 저저마다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고야 대고있으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형제에게 손가락질할 때 남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만 한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마저

결여되어있는 것이다.

리명박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은 립중에 처한 자들의 마지막말약으로서 이래저래 다 망한 판에 미국상정들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려 만신창이 된 체면을 조금이라도 추세우며 도발의 불꽃을 휘둘러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위업을 만천하에 떨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을 두고 저저마다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고야 대고있으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형제에게 손가락질할 때 남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만 한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마저

발》과 《강력한 대응》을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동족대결행위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앞은수이고 죽어가는 자의 비명에 불과하다.

리명박보수 《정권》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존엄한 심판을 받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재



남조선미군합동군사훈련과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항의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 10개 단체가 1월 29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항의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류레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가 쏘면 위성이고 북이 쏘면 《장거리미사일》이라는

말의 제약을 물고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있다. 권력이라는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전쟁의 화약고속으로 국민을 내몰고있는데 이 광란의 절주를 어찌 팔방만 끼고 볼수 있겠는가.

(추가제재) 니, (고강도제재) 니 하는것으로 북핵실험을 막거나 보류시킬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과연 몇몇이나 되겠는가. 방구런놈이 성명한다 9.19공동성명이나 2.29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진것도 바로 미국이다. 결국 미국은 대화가 아닌 굴복을 강요하며 협상이 아닌 항복을 요구하는 제국주의 본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것임을 지난 20년간의 북미대결사는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로숙자와 실업자가 늘어나도 속수무책이고 제정고간마저 베풀어있는 한심한 주제에 방위비불담금 인상과 《한, 미, 일동맹》을 내걸어 전쟁비용을 전가하려는 비렬한 조폭이 바로 미국 아닌가 말이다.

통성장에서 6.15공동선언을 사소한 꿈뻐어본다. 1950년 전쟁이후 최고조의 전쟁위기에 놓인 2013년 올해는 민족의 힘을 합하여 전쟁을 막아내고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웨치는 우리와 같은 전민족의 합성으로 기어 올라와야 한다. (한, 미, 일동맹)을 내걸어 전쟁비용을 전가하려는 비렬한 조폭이 바로 미국 아닌가 말이다.

본사기자

이상한 논리에 대해 북이 반발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만약 당국과 미국이 《제재》를 중지한다면 조선반도에 상상할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밝혔다.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에 경고

있는 남조선당국에 경고하였었다.

단체들은 당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하거나 《독자적

인 제재》에 나선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사 대 매 국 으 로 얼 룝 진 《 정 부 》

남조선에서 《실용》의 간판을 들고 보수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은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오판과 전횡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유린당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책동이 빚어낸 파국적후과이다.

리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의 체질적본성은 집권 전에 벌써 뚜렷이 나타났다.

집권하기 전부터 지난 10년간 《소원》해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였다고 기업을 토한던 보수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부 터 찾아가 《남조선미국 《동맹》을 튼튼히 하자》고 맹약하였 으며 상전에게 남조선외국관계의 《복원》을 구걸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보수 《정권》은 남조선미국관계의 《장조적발전》을 주요 《국정과정》으로, 대내외정책의 주요목표를 미국과의 《관계우선》, 《관계복원》

으로 설정하고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켰다. 이를 위해 리명박 《정권》은 권력의 요직부터 친미분자들로 일쇄화하였다.

청와대와 내각의 장관급이상 고위각료직에 미국류학경력을 가진자들과 미국과 연결된 친미분자들을 들어앉혔으며 《대통령》직속 《국제자문단》이라는 것을 내오고 자문위원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가들을 끌어 들였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이 권력구도에서 《민족공조우위구도가 사라 지고 대미공조가 올라섰다》고 표현한 것은 우연치 않다.

리명박은 이른바 《경제대통령》의 허울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것처럼 떠들었지만 집권 5년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경제를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켜 민생

을 도란에 빠지게 한것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고기시장, 자동차시장, 금융시장 등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남조선경제를 미국의 식민지화정경제로, 철저한 외자의존형 경제로 전락시킨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수집권세력이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성사를 위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늘음을 벌리는통에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히 위협당하고 20여만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보수집권세력은 외세에 동냥족박을 내밀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기간을 대폭 늘여주는 등으로 경제의 외자의존도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결과 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 특히 은행업분야에서 주주의 60%이상을 보유하

여 남조선경제의 명줄을 틀어쥐었으며 불리할 때에는 알수를 다 건어가지고 빠져나감으로써 남조선경제를 헤쳐날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파도가 들이닥치자 외국기업들이 남조선주식시장에서 한달에 30억~40억US\$씩의 자금을 동태고 빼내감으로써 경제를 민사상태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내외신들이 남조선미국 《동맹》관계가 보수당국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평한것은 조금도 틀린것이 아니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내외신들이 남조선미국 《동맹》관계가 보수당국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평한것은 조금도 틀린것이 아니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민화적역수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 들이는데 급급하였다.

생명과 존엄, 민족의 이익을 외세의 통각물로 만들고 온 민족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온 최악의 5년이었다.

그러나 리명박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행적을 돌이켜볼 대신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본성을 버리지 않고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불법무법의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았었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결코 최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핵잠수함과 이지스순양함 등 최첨단전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그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외세와 야합하여 판도질하는 리명박 《정권》이야말로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무 굴종하는자들을 력사와 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본사기자 리광성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 불러 올 것 ...

최근 미군과 남조선호전세력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선동해상에서 잠수함훈련과 대함 및 대공훈련, 해상전술기동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 《무력시위》방송에는 미군의 핵잠수함 《엔드랜치호》, 이지스순양함 《사일러스호》, 10척에 달하는 남조선 함정들과 대잠초계기, 대잠잠수기까지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B-2》 스텔스폭격기 2대를 본토로부터 팔도로 전진 배치하였으며 미7함대소속 항공모함도 곧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하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번 미국과의 연합해상훈련의 목적이 《북의 핵시험과 도발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경제결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북침도발책동이 얼마나 엄청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리명박 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2009년에 왔던 서해무장도발사건과 2010년 3월의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 11월 연평도사건은 물론 해마다 벌어진 《올지오커스 렌즈》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들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특대형도발행위들을 서슴 없이 저지르고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조아 박았는가 하면 백지나게 전언언지대들을 나몰라 《단호한 응징》이니, 《원점타격》이니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한 것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대응의지에 대해 《국가도발》이니 뭐니 하며 군사적공격태세를 갖추고 미국상선의 전쟁지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렇듯 다치면 터질듯 한 긴장한 정세속에서 또다시 대결발작을 일으키고있는데는 추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핵선제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

고 대아시아계련력을 실현하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진짜속심인것이다. 또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이 기회에 상전을 등에 업고 최악으로 얼룩진 자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어떻게 하나 다음 《정권》에 공화국에 관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점군의 범죄적만행을 묵인조장하고 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심히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노예문서》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사기술적우세를 저물던의 특검물로 여기면서 선제타격과 전쟁에 대한 선택권도 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만약 미국과 리명박호전세력이 사태를 오판하고 이 땅에 이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것이며 이 모든 엄청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단호한 조강경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산갈이 일떠서 민들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후판가리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명금룡

남조선미국 《행정협정》(SOFA)이 발표된 때로부터 46년이 되었다.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어 다음해 2월 9일에 발효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미국의 남조선경제를 합법화하고 형사재판,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에서 미군에게 부여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점군의 범죄적만행을 묵인조장하고 범죄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심히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노예문서》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군은 치외법권적인 이 《협정》을 고에 걸고 남조선에서 살인과 약탈, 강간 등 짐승도 낯을 풀릴 범죄적만행을 꾸려갔음이 감행하였다.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적만행은 특히 친미사대분자인 리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더욱 우습해졌다.

지난 한해동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17일 남조선주둔 미군 2사단 소속 한 사병은 동두천시 보산동의 숲집에서 20대의 중얼원녀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주인의 얼굴까지 심하게 구타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9월에도 미군사

최최근에는 미군사병이 자기와 동행한 여러명의 미군과 함께 지하철도에서 정상 한 요구를 하는 20대의 녀성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정약을 금할수 없는것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평등한 《SOFA》의 보호 아래 머리칼 한오리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자기 소굴로 돌아가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주인공행세를 하고 있는것이다. 실제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자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 최근년간 발생한 미군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 125건, 2011년 129건으로서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있다. 병이 10대의 나 어린 녀성을 여러시간동안이나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하기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동두천미군기지주변의 녀성들은 지금도 《바스락소리만 들러도 무서워 잠을 잘수 없다》, 《미군만 보면 소름이끼다》, 《미군을 당장 내몰아야 한다》며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금속로조 총파업 전개

남조선의 금속로조가 1월 30일 당국의 반인민적작업에 항의하여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총파업투쟁을 벌렸다.

단체는 정례회도 열며, 로조파괴 등 동맹투쟁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로총은 금속로조의 총파업투쟁과 관련한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가운데 미군이 구속된 건수는 2011년 단 한건에 불과하였다. 이런 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2002년 두녀중학생살해사건이 보여준듯이 《죽은자는 있어도 죽어있는 없는》 미군에 의해 감행된 사건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더욱 비참한것은 남조선의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불평등한 《노예문서》

남조선의 량심수석방공동행동이 1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로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특명사면》의 명목으로 석방시킨 집권자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리명박의 이번 《특명사면》은 강대집단이나 절수 있는 것으로 과편지의 형질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반인민적

없는 매국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남조선에서 무시로 발생하는 미군범죄는 몇몇 개별적인 사병들에 의한 단순한 우발적범죄행위 가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을 제 마음대로 죽이고 통략할수 있는 식민지노예노박에 보지 않는 미군의 체질화된 남장도적인 본성과 리명박 《정권》의 비굴한 친미사대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며 친미사대매국행위에 갈수록 열을 올리는 외세의존세력인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아있고 남조선에서 어떻게 미군범죄가 근절될수 있겠는가. 현실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과 친미사대에 환장한 보수집권세력들이 존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계속되며 미군에 의한 치욕의 력사도 지속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서희

림종을 앞둔 남조선의 집권자가 지난 4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5년동안에 저지른 친미사대매국행위인 미국산 소고기수입문제와 최악의 부실공사로 박인적인 4대강문제, 극심한 빈부격차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런가 하면 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사건과 《고소형인사》, 《내국동사자의혹》, 임기말에 강행한 측근범죄자들의 《특별사면》, 민간인법률사찰 등 민심의 비난과 규탄을 받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남의 탓으로 몰아대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있다》고 뉘소리까지 쳤다.

삶은 소도 옷다 꾸미미 리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따지고보면 리명박 《정권》의 지난 5년간 행적을 보면 전부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죄악뿐이다. 리명박이 자기 저지른 력사에 애슬수 없는 죄악을 시퍼런 대낮에 《치적》으로 거들고나섰으니 그야말로 죄물만 한 량치도 없는 철면피한이 틀림없다. 리명박이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은 력사의 수배바퀴를 거꾸로 돌린것뿐이다. 아마 지금쯤 리명박은 친미친일을

앞이 자기가 저지른 력사에 애슬수 없는 죄악을 시퍼런 대낮에 《치적》으로 거들고나섰으니 그야말로 죄물만 한 량치도 없는 철면피한이 틀림없다. 리명박이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은 력사의 수배바퀴를 거꾸로 돌린것뿐이다. 아마 지금쯤 리명박은 친미친일을

우기 위해 99% 서민들의 등가죽을 벗겨내느라 열심히 비지땀을 흘리고, 《명박산성》을 쌓아 인민들을 탄압하고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느라 열심히 낱알을 골리고, 통일진보인사들을 철창속에 갇혀가기 위해 열심히 피소장을 돌리고, 《비핵, 개방, 3000》 따위의 차단봉으로 봉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원칙고수》니, 《5.24조치》니 하는 불신과 대결의 폐속들에 열심히 대못질을 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단것은 물론 외세 등에 업고 북침전쟁을 저지르기 위해 온 남조선땅에 화약내를 풍기느라 열심히 부채질한것도 리명박 《정권》이다. 천하에 없는 이런 반역자에게 남조선민심은 《4대강과 내국동사자의혹 등으로 력사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열심히 하셨으면 한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그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 폭로

1월 30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신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라는자가 거액의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자는 지난해 한 살인범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의 받았으며 그를 로조파괴 등 특별명회시켜주거나 300만원을 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부정부패죄인들을 석방시킨 집권자를 비난

남조선의 량심수석방공동행동이 1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로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특명사면》의 명목으로 석방시킨 집권자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반인민적

폭압과 로동운동탄압을 중지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량심수들을 석방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철폐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리명박의 이번 《특명사면》은 강대집단이나 절수 있는 것으로 과편지의 형질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반인민적 폭압과 로동운동탄압을 중지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량심수들을 석방하며 《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을 철폐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는 제일 격정적일것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로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꾸러깁듯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미타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예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단순한 말실수인가? 연행때문에 북남관계가 결판나고 대결과 불신이 격화되다 못해 북남사이에서 불과 불이 서로 오가는 협악한 사태까지 번져지게 되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자리에서 물리나게 된 이 마당에 와서까지 그 무슨 《예측할수 없는 단체》니 뭐니 하며 악담들을 계속하고있으니 리명박이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대결의식이 짙어찬 친화적역적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리명박의 속통머리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방일것이다. 예로부터 언어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수 있게 하고 밖에 내비칠수 있게 하는 《창문》이라고 했다. 말에서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 취미가 표현되며 그의 작당과 지성정도, 문화도덕수준까지도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로 가야 할 동족을 아무 꺼리낌없이 《단체》라고 제책하는 이런자가 《대통령》이랍시고 5년동안이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었으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의 사회여론이 정치범의 한이나 다름없는 리명박때문에 대내정치도 북남관계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말았다고 하면서 조소와 분노를 퍼붓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머릿통은 빌대로 비고 속통에는 교악한 흥심만이 짙어찬 리명박이 갈 곳이란 력사의 시궁창뿐이다. 박철남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얼마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러가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결코 또 횡설수설하였다. 그는 북의 《인권》상황이 어떻다느니, 유엔에 그 무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대결의식이 팔수에 배인자들이 특하면 내놓는것이 북의 《인권문제》이다. 온통 공화국은 사회주의 명명국진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인민, 그 이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였다. 사람, 인민대중을 우선시 하고 그들을 위해 부쿠하는 그런 사회, 그런 제도에서 《인권문제》란 애초에 성립될수 없다. 황우러가 또다시 케케묵은 《인권》타령을 늘어놓는것을 보니 그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다. 인권문제를 말하려면 제가 살고있는 주변부터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세계에 《자살왕국》이라

는 오명으로 불리우고있는것이 남조선의 실체이다. 한진중공업에서만도 당국의 비인간적로동정책에 의해 비명에 간 시신을 두고 이 시각도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통성투쟁을 벌리고 있다. 배움의 권리를 빼앗은 엄청난 학비, 학교폭력, 《불하면 내놓는것이 북의 《인권문제》이다. 온통 공화국은 사회주의 명명국진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인민, 그 이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였다. 사람, 인민대중을 우선시 하고 그들을 위해 부쿠하는 그런 사회, 그런 제도에서 《인권문제》란 애초에 성립될수 없다. 황우러가 또다시 케케묵은 《인권》타령을 늘어놓는것을 보니 그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다. 인권문제를 말하려면 제가 살고있는 주변부터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세계에 《자살왕국》이라

김정력

《모야!-》
《야-》
《한번 더 하라.》
...

웃 가 락 에 흥 이 난 다

웃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퍼뜩한 웃음속에 또다시 웃음으로 웃추는 웃가락들, 이번엔 또 《슌》이 나왔다. 그러자 흥이 나 어개를 들썩이며 두동산씩 말을 모아 전진하는데 바삭 긴장해진 다른 편에서 작전을 새롭게 짜자고 맹렬한 추적전을 벌인다.
...
이것은 설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인동 79인민반 주민들의 웃놀이경기장면이다.
이곳 인민반의 김옥희인민반장은 총별로 한팀이 되어 승자전으로 경기를 진행하

는데 이진 두팀이 설명절날에 최종순위를 다투게 되어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지금 7층과 12층사이에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웃놀이경기는 다음날에 있게 될 결혼경기참가자격을 얻기 위한 경기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보다도 웃놀이관을 둘러싼 응원자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며 열을 올리고있었다.
웃가락이 풀리나서 없어질 듯 하다가 찢히고 찢혀질 듯 하다가 없어지는것을 따라가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눈빛들, 《도》나 《후도》가 나올 때의 아쉬움과

《슌》, 《모》가 나왔을 때의 기쁨의 탄성이 엇갈려 분위기는 시간이 흐름수록 고조되어갔다.
바로부터 웃놀이는 놀이 방법이 다양하고 몇사람이건 짝만 맞으면 어디서든 놀 수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설명절때마다 제일 즐겨하는 민속놀이였다. 가족, 친척끼리 혹은 온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떠들썩한 응원속에 웃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기도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승부를 다투는 웃놀이경기, 흥겨움과 긴장감, 량만속에 한바탕 웃놀이를 하며 사람들은 화목과

단합을 도모해간다.
하기에 김옥희인민반장은 웃놀이야말로 할수록 더 하고



《떡국을 몇그릇 먹었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떡국으로 만든 떡국떡을 썰어서 고기장국에 넣고 끓인것이 설음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떡국이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다. 뜨거운 떡국을 후후 불며 먹을 때면 세상스럽게 또 한해가 시작되 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기에 한해를 넘겨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은 《떡국을 먹었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 냈으며 《떡국을 몇그릇 먹었나?》하는 말이 아 래사람들에게 나이를 묻 는 말로 쓰이였다.
《세주들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 지 않을수 없으며 어른들 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 르지 않을리 없다. 설날 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 고 하였는데 고려약재인 도

실고 승부를 떠나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정말 좋은 민속놀이라면서 온 인민반의 관심속에 설명절에 펼쳐지게 될 결혼경기는 더욱 불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박원평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1)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광명성절
2)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강의날자: 1) 주체102(2013)년 2월 15일
2) 주체102(2013)년 2월 15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봄 이 시 작 되 는 설 날

우리 나라의 사계절 가운데 제일먼저 찾아드는것이 봄이다. 그리고 한해의 민속명절 가운데서 제일먼저 맞는것은 설이다.
설날은 한해의 첫날이자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간혹 《설날이면 흰눈이 강산같이 쌓여있는데 봄이 라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하늘땅이 열린이래 오랜 세월 음력을 써온 우리 조상들은 립춘과 가까운 력설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보아왔다. 그들은 설날을 《새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여 《신춘》 또는 《춘정월》이라고 불렀으며

정월, 2월, 3월을 《봄철의 석달》이라는 뜻에서 《춘삼삭》이라고 불렀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므로 봄이 오는것은 쉬이 알리지 않는다. 설날부터 봄이 시작된다고 하여 꽃이 피는 것이 아니며 계절의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칼바람은 여전히 원형기이며 추위를 몰아오고 《동장군》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버티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두렵게 언 얼음장 밑으로 돌돌 흐르는 산골짜기의 시냇물소리가 들리와 봄이 오는것을 알수 있다. 시냇가의 버들강아지가 물이 올라 한껏 부풀며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르세

로 갖난이게순같은 어린 싹들이 솟아난다. 나무가지들에도 싹이 트고 꽃망울이 울망울망 달린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다. 뜨거운 떡국을 후후 불며 먹을 때면 세상스럽게 또 한해가 시작되 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기에 한해를 넘겨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은 《떡국을 먹었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 냈으며 《떡국을 몇그릇 먹었나?》하는 말이 아 래사람들에게 나이를 묻 는 말로 쓰이였다.
《세주들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 지 않을수 없으며 어른들 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 르지 않을리 없다. 설날 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 고 하였는데 고려약재인 도

라지, 흰쌀주부터, 계피나무 열매 등을 넣고 빻은 도소주와 산초, 잣을 넣고 만든 초백주 등을 썼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설날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이 없었으며 《세주들은》이라 하여 엄격히 나누는것으로 고지였다.
《웃진 애비같다》
웃놀이는 우리 인민이 옛날부터 설명절에 제일 즐겨한 민속놀이였다. 설날이 오면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데 어울려 웃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며 서로 승부를 겨루었다.
《웃진 애비같다》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머리 허연 사람이 젊은이나 어린 애한테 지고는 한번만 더 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것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본사기자

올해 공화국선수들이 참가하게 될 국제 경기 들

2월	백두산상국제취거축전(조선)	단골로브국제레슬링경기대회(벨라루스)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중국 홍콩)	3월	세계겨울상호체이 1부류 2조 선수권대회(프랑스)	4월	국제육상명맹-만경대상 마라톤경기대회(조선)	5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프랑스)	국제육상경기대회(중국 대북)	6월	아시아에술체조선선수권대회(우즈베키스탄)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스파냐)	8월	아시아청년레슬링선수권대회(몽골)	9월	VTV컵남국제공예배구경기대회(월남)	10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중국)	11월	세계력기선수권대회(장소 미정)	12월	세계컬링선수권대회(장소 미정)	세계탁구배구경기대회(월남)	세계수구선수권대회(장소 미정)	세계수구선수권대회(브라질)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마카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맛 좋은 설명절음료들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크며 술을 마신 후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설명절때 많이 씀다. 추운 때이지만 따뜻한 방안에 앉아 수정과를 마시면 시원하고 맛이 독특한것이 이데 없었다.
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전통적인 민족음료인 수정과는 과일이 익는 절기에 따서 잘 보관하였다가 명절이나 뜻깊은 날에 맛볼수 있게 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명성을 보여주는 좋은 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최근 날씨가 차지면서 돌림감기가 많이 돌고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보통감기와 돌림감기로 구분한다. 보통감기에는 계절성감기와 코감기가 있다.
돌림감기는 여러가지 류형의 감기비루스들이 코, 목구멍, 숨길 등에서 일어난다. 이는 병원에 간에서는 독감이라고도 한다.
돌림감기에 걸리면 보통 감기때보다 처음부터 중하게 앓는다. 돌림감기를 자주 앓게 되면 몸안의 면역이 약해지고 또 이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제때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야 한다.
돌림감기를 미리 막자면 몸을 든든히 단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을 일상적으로 단련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또 감기에 걸렸다 해도 경하게 앓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돌림감기비루스가 주로 코안이나 목안점막을 통하여 몸안에 침투하는 것만들 돌림감기를 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특히 머리와 손발간수를 잘해야 한다. 머리와 손발이 차면 몸의 컨디션이 낮아지며 돌림감기에 쉽게 걸릴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몸을 차지 않게 건조하게 주의하여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앞날을 내다보는 사위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데리고있는 아버지가 앞일을 잘 내다볼줄 아는 사람을 사위로 맞으리라 걱정하고있었다.
어느날 길을 가던 그 사람은 나무꾼아이 여럿이 말을 하고있는것을 보았다.
한 아이가 《하, 레일 비가 오겠는걸.》 하자 다른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그때도 그 아이는 계속 우겨댔다.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이름과 사는곳을 물어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다음날 비가 왔다.
그는 그길로 나무꾼아이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그후 어느날 그는 사위에게 말을 건넸다.
《자네는 비가 오리라것을 내다보는데 다른것도 많이 알고있을터이니 어디 이야기 좀 하게.》
《저는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바로 말하게. 자네야 아무날 비가 오리라것을 신통히도 알아맞히지 않나?》
《그것은 제가 그전에 음을 읽은적이 있었는데 그후로는 비가 오려면 온몸이 가려우므로 그렇게 말해요.》

스 키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스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단히 개량하였다.
스키는 여러가지 소재로 만든다. 원래 나무로 만든 스키를 1930년경부터 합판소재로 하여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936년 제4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는 이것을 널리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경금속이나 합성수지로 만든 스키가 널리 쓰이고있다.
스키는 경기종목에 따라 거리지치기용, 내리지치기용, 조약용, 자유형용, 행군용 및 등산용스키로 구분한다. 스키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경기종목과 키에 따라 스키를 선택한다. 스키경기에는 여러 세부종목들이 있다.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공화국에서는 스키경기가 널리 대중화되고 있으며 스키에호가들도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스 키

고개를 힘있게 끄덕이는 아버지의 눈가에 납물같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15년전 당국의 반동일죄행을 규탄하는 기사를 쓴 《죄》로 감옥에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심화병으로 운명하자 남조선사회에 침범고 두살짜리 외동딸을 품에 안은채 태평양을 넘어온 아버지, 그 시절 아버지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별안간 소나기가 쏟아졌다. 동료들의 몸은 순식간에 젖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도 6.15통일시대가 도래한것을 축하해서 비를 보내 준다면 기세를 올렸다.
덩더쿵, 덩더쿵- 쿵쾅, 쿵쾅- 장교와 병과가 흥취를 돌리는 속에서 비에 젖고 회열에 취한 동료들이 두팔을 너풀너풀 흔들며 돌아갔다. 경아도 아버지와 인숙이라는 그 너이고 한데 어울려 신나게 출가락을 엮었다.
《허, 저 무지개를 라고 고향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구나.》
신문사사장이라는 체면과 꺾다고 할수 없는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공상이었지만 경아는 감히 웃음냄을 못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싶었으면 그러실까.
그때부터 무지개는 처녀의 가슴속에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통일조국의 상징물이 생겨났건은 그 무렵이었다. ...
《나그네가 돌아오면 무지개에 추억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
《사장은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편집부장님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무지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아시겠지만 무지개란 대기중에 뿌려진 수많은 물방울들의 해빙결로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무지개에 대한 사랑을 함부로 잊고 만납니까.》
《그런데 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지요. 무지개는 어디까지나 무지개에 불과하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벌써...》
경아도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것을 보고있었다. 무지개가 사라진 하늘은 별스레 희미해졌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속이 빈것처럼 허우룩해졌다.
어느때 같은무지개에 대한 병화의 견해를 듣고 잠자코 있지 않았을것이다. 했으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는 한때 사춘기 소녀처럼 무지개에 매혹되었었다. 물론 부친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즈음 경아의 심중에서는 이상아픈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지난 2월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출현하였다. 이는 온 남조선땅에 반동일파풍이 무섭게 불어치기 시작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해와 협력의 대화가 사모치며 호르던 북과 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이 솟았고 6.15통일지세력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고있었다.
그 엄혹한 현실은 처녀의 가슴속에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통일무지개마저 서서히 멀어내고있었다.
나그네가 돌아오는 길에는 흥심없이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무 지 개 (3)

본던 경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와락 딸의 손을 잡았다.
《에야,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갈것 같구나. ... 그렇지 않소? 인숙부인.》
그러자 아버지옆에 서있던 그 녀인이 부드러운 미소로 수긍했다.
그 녀인을 결혼질하는 경아에게 아버지가 신문물 넘겨주었다.
《이걸 읽어보렴. 이걸.》
신문을 펼치던 경아는 눈을 크게 떴다. 장부 반세기 동안 대결의 장벽을 우뚝 쌓아오던 북과 남사이에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조국을 통일할때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이다.
《이게 정말이냐요?》
《그럼.》

《무지개로군.》
경아와 인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것처럼 맑은 하늘에 천사의 미소같은 무지개가 걸려있었다. 얼핏 보면 한쪽끝은 이곳에, 다른쪽 끝은 저 멀리 태평양너머에 걸려있는듯싶었다.
《허, 저 무지개를 라고 고향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구나.》
신문사사장이라는 체면과 꺾다고 할수 없는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공상이었지만 경아는 감히 웃음냄을 못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싶었으면 그러실까.
그때부터 무지개는 처녀의 가슴속에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통일조국의 상징물이 생겨났건은 그 무렵이었다. ...
《나그네가 돌아오면 무지개에 추억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
《사장은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편집부장님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무지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아시겠지만 무지개란 대기중에 뿌려진 수많은 물방울들의 해빙결로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무지개에 대한 사랑을 함부로 잊고 만납니까.》
《그런데 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지요. 무지개는 어디까지나 무지개에 불과하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벌써...》
경아도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것을 보고있었다. 무지개가 사라진 하늘은 별스레 희미해졌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속이 빈것처럼 허우룩해졌다.
어느때 같은무지개에 대한 병화의 견해를 듣고 잠자코 있지 않았을것이다. 했으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는 한때 사춘기 소녀처럼 무지개에 매혹되었었다. 물론 부친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즈음 경아의 심중에서는 이상아픈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지난 2월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출현하였다. 이는 온 남조선땅에 반동일파풍이 무섭게 불어치기 시작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해와 협력의 대화가 사모치며 호르던 북과 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이 솟았고 6.15통일지세력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고있었다.
그 엄혹한 현실은 처녀의 가슴속에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통일무지개마저 서서히 멀어내고있었다.
나그네가 돌아오는 길에는 흥심없이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무지개로군.》
경아와 인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것처럼 맑은 하늘에 천사의 미소같은 무지개가 걸려있었다. 얼핏 보면 한쪽끝은 이곳에, 다른쪽 끝은 저 멀리 태평양너머에 걸려있는듯싶었다.
《허, 저 무지개를 라고 고향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구나.》
신문사사장이라는 체면과 꺾다고 할수 없는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공상이었지만 경아는 감히 웃음냄을 못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싶었으면 그러실까.
그때부터 무지개는 처녀의 가슴속에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통일조국의 상징물이 생겨났건은 그 무렵이었다. ...
《나그네가 돌아오면 무지개에 추억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
《사장은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편집부장님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무지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아시겠지만 무지개란 대기중에 뿌려진 수많은 물방울들의 해빙결로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무지개에 대한 사랑을 함부로 잊고 만납니까.》
《그런데 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지요. 무지개는 어디까지나 무지개에 불과하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벌써...》
경아도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것을 보고있었다. 무지개가 사라진 하늘은 별스레 희미해졌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속이 빈것처럼 허우룩해졌다.
어느때 같은무지개에 대한 병화의 견해를 듣고 잠자코 있지 않았을것이다. 했으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는 한때 사춘기 소녀처럼 무지개에 매혹되었었다. 물론 부친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즈음 경아의 심중에서는 이상아픈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지난 2월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출현하였다. 이는 온 남조선땅에 반동일파풍이 무섭게 불어치기 시작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해와 협력의 대화가 사모치며 호르던 북과 남사이에 대결의 장벽이 솟았고 6.15통일지세력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고있었다.
그 엄혹한 현실은 처녀의 가슴속에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통일무지개마저 서서히 멀어내고있었다.
나그네가 돌아오는 길에는 흥심없이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흰 머 리 카 락 이 나 오 면

◎ 매일 거꾸로 서서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광택이 나고 흰 머리카락이 나오는것도 방지 할수 있다.
◎ 날참깨기름에 적당한 량의 뽕잎을 넣어 진하게 달인것(찌꺼기는 버린다.)에 물을 타서 머리를 씻으면 머리카락이 많아지고 흰머리가 줄어든다.
◎ 호두나무껍질을 짓찧어 그 즈음으로 머리를 감는다.
본사기자